

사랑의열매

2022 07



새롭게 떠오르는
따뜻한
나눔의 강자

지역사회 위해 회사 이익
1% 기부 약속한 (주)빅스틴



사랑의열매 열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2022
07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나눔

경북 7호이자 김천 1호로
나눔영웅기업에 가입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리



2022
07

충북 도민을 위한 새로운 나눔의 리더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조하는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2022 07



2022
07

라디오
전파를 타고
퍼지는
선한 영향력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로 조성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sdv_ji_hwan



집 오니까 선물이 왔다.
모처럼 기분 좋은 날^^
#기부 #김포복지재단 #사랑의열매

na_0_88



가족 나들이^^
#안성맞춤랜드 #사랑의열매 #사랑해
#정아#동생

call990831



6월 11(일)토에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에 처음 참여했어요.
방금참가상으로 질리, 킨링, 종이
저금통, 스티커를 택배로 받았는데,
골도 쓰고 선물도 받고 나눔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나눔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이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안 통화여 3천 원)



문자
#9004
(안 통화여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탑 기부 좋은 날, 기분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카드 기부 해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 37-04-000306 농민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 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눔을 위한 나눔은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채수빈

70. 사랑의 열매 20주
나눔을 위한



2018년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광고로 연출 맺은 배우 채수빈님은

같은 해 9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평소 유기견 봉사 활동과 무료 급식 봉사 등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채수빈님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3 2022. 07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위 왼쪽부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중현 대리, 김나경 대리
(아래 왼쪽부터)
김다원 대리, 권용복 이사장, 고성재 대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7월 / 통권 18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로관 6층

만민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3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사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dkpr@chest.or.kr로 상담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자르르 자락난 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04

모두의 나눔

우리 이웃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건강 증진 활동
펼치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내 인생의 한마디

인천 부녀(父女) 아너1호
이규원·과외원 이규원·이근아 원장



18

착한 열매슬랭

진한 맛의 정수, 광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 종료 후 남은 후원금 기부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 홍준서 씨

24

착한기업

부동산 운용업계 신성기업,
나눔의 리더가 되다

28

그린열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30

나눔 이슈

- ❶ 광주 사랑의열매 재3대
박철홍 신임 회장 취임
- ❷ 우크라이나에 전한 따뜻한 희망

32

클라우드편당

어르신들의 무더위 영양 관리를 위한
삼계탕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44

이달의 아너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3 2022. 07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끈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7월 / 통권 18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로만 6층

만민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3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사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을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dkpr@chest.or.kr로 상담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자르르 자락난 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04

모두의 나눔

우리 이웃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건강 증진 활동
펼치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내 인생의 한마디

인천 부녀(父女) 아너1호
이규원·과외원 이규원·이근아 원장



18

착한 열매슬랭

진한 맛의 정수, 광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 종료 후 남은 후원금 기부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 홍준서 씨

24

착한기업

부동산 운용업계 신성기업,
나눔의 리더가 되다

28

그린열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30

나눔 이슈

- ❶ 광주 사랑의열매 재3대
박철홍 신임 회장 취임
- ❷ 우크라이나에 전한 따뜻한 희망

32

클라우드편당

어르신들의 무더위 영양 관리를 위한
삼계탕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북·충남·세종·대전

44

이달의 아너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3 2022. 07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 로)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의 김현정 PD,
장경하 편집제작국장, 이진용 PD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7월 / 통권 18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로관 6층

만민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법,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3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사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dkpr@chest.or.kr로 상담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자르르 자락난 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04

모두의 나눔

우리 이웃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건강 증진 활동
펼치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내 인생의 한마디

인천 부녀(父女) 아너1호
이규원·과외원 이규원·이근아 원장



18

착한 열매슬랭

진한 맛의 정수, 광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 종료 후 남은 후원금 기부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 홍준서 씨

24

착한기업

부동산 운용업계 신성기업,
나눔의 리더가 되다

28

그린열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30

나눔 이슈

- ① 광주 사랑의열매 제3대
박철홍 신임 회장 취임
- ② 우크라이나에 전한 따뜻한 희망

32

클라우드편당

어르신들의 무더위 영양 관리를 위한
삼계탕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북·전남·제주·광주

44

이달의 아너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3 2022. 07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주)넥스틴 윤상복 부사장, 최홍기 전우, 박태춘 대표이사, 김새하 차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7월 / 통권 18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로만 6층

만민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3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사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dkpr@chest.or.kr로 상담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자르르 자락난 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04

모두의 나눔

우리 이웃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건강 증진 활동
펼치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내 인생의 한마디

인천 부녀(父女) 아너1호
이규원·과외원 이규원·이근아 원장



18

착한 열매슬랭

진한 맛의 정수, 광주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 종료 후 남은 후원금 기부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 홍준서 씨

24

착한기업

부동산 운용업계 신성기업,
나눔의 리더가 되다

28

그린열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30

나눔 이슈

- ❶ 광주 사랑의열매 재3대
박철홍 신임 회장 취임
- ❷ 우크라이나에 전한 따뜻한 희망

32

클라우드편당

어르신들의 무더위 영양 관리를 위한
삼계탕 지원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경기북부·강원·서울·인천

44

이달의 아너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우리 이웃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들 잃는다”는 말이 있다.
한 번쯤 호되게 앓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 특히 힘든 환경에 놓인
이웃들은 몸과 마음에 이상 신호가
있어도 스스로 돌보는 게 쉽지 않다.
이에 사랑의열매와 전국나눔협력기관은
우리 이웃이 전부들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며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글:이연희 사진:나눔기원 일러스트:조성훈



국내외 난청 환자 청각 재활 지원 사업

난청은 신생아의 선전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공와우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수술 후 재활치료는 필수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큰 편이다. 게다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마땅히 재활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 치료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은 KT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꿈꿈교실1호에선 정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욕구에 맞춰 소그룹 언어 치료, 음악·미술·영어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꿈꿈교실1호에 이어 캄보디아 프리영동 병원에 꿈꿈교실2호를 운영하며 한지의 정각장애 아동들이 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인공와우 수술,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등 국내외 환자에게 수술비 및 재활 비용을 지원하는 정력지킴이 사업, 정각장애인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1 시외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꿈꿈교실 2호 2학년 아동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정력지킴이 사업 사진은 보청기들을 제작 중인 모습 3 꿈꿈교실 1호에서 진행한 소그룹 언어 지도 교실



백혈병·소아암 청소년 학습 태도 증진 및 학업 복귀를 위한 학습 교칭

소아암 청소년은 항암치료로 인한 체력과 면역력 저하, 잦은 입·퇴원, 외부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며, 학교에 다니더라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022년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 소아암 청소년 종합 학업 복귀 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기질과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 3년간 일대일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후유 장애가 나타나는 소아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 정서·생활·학습 코칭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양육자를 위한 부모 코칭과 양육 태도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각분야 전문가, 학교 관계자, 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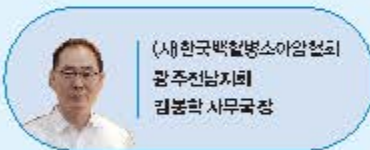


- 1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의 기질과 학습 스타일을 분석한다
- 2 심리 상담 전문가와 학습 코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코칭 사례 회의를 하는 모습
- 3 소아암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돕는 각 분야 전문가들





Mini Interview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김봉학 사무국장

어떤 점에 중점을 두나요? 참여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와 주 양육자에게 적합한 기질과 재능을 가진 심리 상담 전문가와 학습 코칭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했습니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지능 개발과 학습 태도, 식생활 교정, 가족간의 이해와 관계 증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는 코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코칭 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각자의 개별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참여자를 꼽는다면요? 전문가가 개별성·차별성에 얼마나 집중해서 섬세하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환아가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학교를 처음 다녀 실제로는 1학년 수준의 감수성에 머물러 있었지요.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재능을 살려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발휘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투입한 자원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아이에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전문가에겐 새로운 학습의 참여자로서 소명 의식을 실현할 기회이고요. 협회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차원 높은 혁신 프로그램을 주진에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초의 토털 코칭 사업으로서 학술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으며, 선진적 사례를 남겨 확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여자들이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룰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환아와 양육자의 멘탈 케어와 학습 역량 향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국내외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모두가 기다려온 밴드 창단식 날 2기원의 눈물이 가득했던 밴드 창단식 현장 3밴드 구성원들이 스뽕하며 맞추는 모습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피해 후유증 완화를 위한 음악 활동 지원 사업 세상을 향해 꿈을 연주하라!

법적으로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들은 학교생활과 학업,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진로나 진학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에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22년 나눔과 꿈 사업에 선정돼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밴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피해 후유증을 완화하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음악을 통해 사회로부터 수용되고, 지지받는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한다. 3년 동안 진행하며 1차 연도인 올해는 '나'를 주제로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치유하는 데 집중한다. 2차 연도에는 동료들과 음악을 하는 즐거움·편안함·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3차 연도에는 회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MiniInterview



개인 연주 활동이 아닌 밴드 활동으로 기획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지요. 학습 및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사회성 향상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합주를 통해 밴드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나아가 소속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음악으로 변화된 참여자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2017년 선행 사업으로 8명의 참여자가 밴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취업에도 성공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성취감 고취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자 중 한 명은 입단 당시 자퇴를 고민했는데, 밴드 활동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재밌고, 연습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밴드 단원들과 어떤 일을 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말합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룬 부분이 있다면요? 대부분은 현재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합니다. 저희는 참여자의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심리 정서 프로그램, 삶에 초점을 맞추

는 밴드 활동, 정서 지원과 진로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이 합주를 통한 공동체 활동이 목적이었다면, 저희는 사회성 향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말한 선행 사업 당시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고, 악기도 부족했습니다. 나눔과꿈 지원 이후 저희만의 연습실을 마련했고, 악기도 구색을 갖췄습니다.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고, 음악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밴드 장단식 때 센터 직원들과 참여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 간호, 자택 물품 등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진희자 씨 모녀원복 두 번째, 세 번째가 간호사 작업실로서 요양보호사 등과 자리를 함께했다

의료 취약 개승 위해 건강증진활동 펼쳐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 사각지대의 이웃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다. 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병원이 있다.
7년째 의료 사각지대 건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글장은진 사진 서현세



“손도 아프고, 몸에 상처도 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집으로 와서 치료해주니까 이제 아프지 않아서 좋아요.”

- 사업 이용자 진희자 씨(원주시문막읍)

"자, 이제 점토를 손으로 둥그렇게 굴려볼까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원주시 문막읍에 살고 있는 진희자씨의 방문 재활 서비스 현장이다. 집으로 방문한 작업치료사는 굳어 있는 진희자씨의 손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활 훈련을 했다. 진희자 씨는 익숙한 듯 작업치료를 따라 손을 움직였다. 재활 훈련 후에는 방문 간호사의 치료도 이어졌다. 절압부터 절당 체크 등 만성질환 관리부터 등과 엉덩이 등에 난 욕창 드레싱과 복약 지도까지 꼼꼼하게 진행됐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진희자씨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장애로 고통 받아왔다. 그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고혈압과 당뇨, 욕창에 파킨슨병까지 질병은 늘 어만 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진희자 씨를 돌봐주던 어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고, 모녀는 고립되다시피 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 바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원주의료사회)이다. 진희자 씨 모녀는 원주의료사회를 통해 요양보호사 돌봄은 물론, 방문 재활 및 방문 간호 등 의료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은커녕 현관문을 열기도 힘들었던 모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짧은 외출도 가능하다.

의료사각지대 이웃 위한 7년

2002년 설립한 원주의료사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7년 동안 '농촌 지역 및 시내경계 지역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진희자 씨처럼 의료복지 취약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해왔다. 구체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반장활동가, 방문 간호 및 방문 재활 서비스, 의료 사각지대 참여자의 기초 생계 지원, 노인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이다.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살든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이나 시내와 떨어진 외곽 지역 주민에게는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다. 차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주민은 쉽게 병원에 가지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아파도 잠고 견디다 작은 병도



— 방문 간호를 위해 이용자 집을 직접 찾은 원주의료사회 최유진 간호사



— 방문 간호 용인 가방에는 정전기와 주사기 등 의료 기기와 용품, 약 등이 가득 들어 있다



1 원주의료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2 작업치료사의 방문 자원 모습

게 키우는 일이 다반사.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주의료사업의 방문 의료가 꼭 필요하다.

복지의 중간 다리 역할도 특목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다. 원주의료사업은 사업을 통해 이용자를 발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징검다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실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다른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활동이 돌본다. 원주의료사업의 교육을 수료한 활동가들은 월 10회 이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만나 건강 안부를 묻고, 생활환경과 신체 상태를 관찰한다. 또 식사와 배변, 수면, 낙상 안전, 복용 약 병력 등을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주의료사업에 알린다. 이 같은 건강반장 활동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지역 및 시내경계 지역 건강 지원 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이용자 149명이 혜택을 받았다. 원주의료사업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노인을 비롯해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위한 활동을 지속어나갈 예정이다.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아직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정말 많다. 나조차도 일반 병원에서 원주의료사업으로 옮겨 일하게 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예를 들면 서류에는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독거노인인 분들이다. 이런 경우 자녀나 나라 모두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 아파도 병원 가는 일이 여러 이유로 쉽지 않다.



방문간호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확인된 질환을 점검하고 치료한다. 하지만 처음 대상자를 방문하면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의사 선생님과 함께 환자문을 살펴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만약 약대상자가 외상환자라면 언제부터 왜 누워서 지내게 됐는지, 누워 있는 곳이 딱딱한 바닥인지 침대인지 환경도 살펴보고, 욕장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실제 욕장이 생기진 않았는지 방문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와 간호사가 판단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한다.

의료 사각지대 지원 사업에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고 있다. 오늘 방문한 진희자님 욕장 치료에 사용된 메디폼이나 고정용반장(파픽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사각지대건강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자기 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상자 분들께겐 큰 도움이 된다.

주로 방문간호를 하면서 보람된 순간도 많을 것 같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정부터 행정자치센터는 물론, 여러 복지 기관까지 전화를 하다 보면 내가 간호사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웃음), 우리 원주 의료사업 통해 치료도 받고, 다른 복지 혜택도 받으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했구나 싶어 행복해진다. 기만이라도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원주의료사업의 의료 사각지대 건강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교통이 불편해서, 자식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거동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등 갖가지 이유로 말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문간호, 방문 재활 등 환자를 찾아가는 '농촌 지역 및 시내경계 지역 건강 지원 사업'뿐 아니라 1차 의료까지 더욱 활성화돼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누구나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

인천 부녀(父女) 아너 1호 이규원치과의원 이규원·이근아 원장

‘영구치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이규원치과의원은 인천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개원 초부터 30년 넘게 이어온 장애인무로 진료에 한국전쟁참전 소년병을 추모하는 '인천소년병 6·25참전관' 건립과 운영까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처럼 해내며 나눔문화들 선도하고 있다.

글장보라 사진이승재

이규원치과의원에는 인천 최초의 부녀(父女) 아너가 있다. 아버지인 이규원 원장은 인천 아너 41호이며 치과 의사로는 첫 번째 회원이고, 딸인 이근아 원장은 인천 아너 127호로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부녀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이어 나눔 행보까지 뽐내며 꼭 닮았다.

인천소년병 6·25참전관 관장이 된 치과 의사

'인천소년병 6·25참전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부친 이경중 용과 인천 출신 약 3,000여 명의 중학생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큰아들 이규원 원장이 설립한 곳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3층에 위치한 치과에 가기 위해서는 1~2층의 참전관을 통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관람을 위해 의도한 설계다.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스러져간 인천소년병들을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원 원장

'인천소년병 6·25참전관'은 1996년 7월 15일 환갑이 넘은 나이에 6·25참전용사증서를 받은 이경중 용(현재 88세)이 소년병 참전 역사를 찾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아들 이규원 원장과의 대화에서 시작한 일이다. 이규원 원장은 '인천소년병 6·25참전사편찬위원회'를 꾸린 뒤 이경중 용이 1996년부터 20년 넘게 전국 각지의 인천소년병들을 만나며 한국전쟁 참전 사진과 전역증서, 전사통지서 등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렇게 2,500여 점의 생생한 자료가 모였고, 이를 토대로 '인천소년병 6·25참전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치되어 있던 소년병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묘지로 이장(移葬)하는 업적도 세웠다.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두 부자(父子)가 오롯이 써 내려간 참전의 역사다. 이후 인천소년병 6·25참전사를 기록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 참전관은 개인이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천광역시에 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되었다. 이 모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일이다. 소년병으로 참전해 자손도 없이 스러진 사람들이 애달파서 한없이 매달린 것인지 모른다. 이규원 원장은 '인천소년병 6·25참전관을 통해 "그날의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목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일상을 수호하는 평화주의자

이규원 원장은 '인천소년병 6·25참전관' 운영을 기본으로 매년 6월이면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정기 후원을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혼모, 인천구치소 수용자 등 다양한 분야의 소외 계층을 후원하고 있다. 그의 기부는 전방위적이지만, 공통 키워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원 원장은 한국전쟁에서 스러진 젊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인생의 전쟁터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껴안는다. 패잔병처럼 쓰러진 이들을 보듬으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수호하고 돕는다. 인천 구치소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지원하는 일만 해도 그렇다.

“영치금이 없는 어려운 형편의 수용자들은 구치소 생활마저 비루하게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수용자들이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길 바라며 후원을 이어가고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후원을 이어온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이규원 원장은 인천구치소 수용자 후원으로 법무부장관상까지 받았다. 가끔 그의 통큰 후원에 걱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조국 영령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꾸리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슬며시 웃을 뿐이다.

— ‘남을 나와 같이 굶을 서운처럼, 굶을 습과 같이!’
이규원 원장의 나눔 여시지는 인성을 관통하는 걸러이기도 하다



의료 봉사로 삶의 지혜를 배우다

본업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봉사는 이규원 원장의 트레이드마크다. 이근아 원장이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도 “딸과 함께 더 많은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을 정도다. 하루 평균 20명의 장애인 무료 진료를 이어가는 부녀는 “장애인을 대면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지적장애인 중에는 잘 먹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바라잖아요. 어떤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걱정을 안고 사는 내가 장애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규원 원장

최소한의 조건에도 만족하는 소박한 마음이 행복의 원천이자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삶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다. 이근아 원장이 주어진 환경과 재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일 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존경스러운 부모님이 계시고, 태어나서 대가 없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에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근아 원장

기부 DNA로 대를 이어가는 나눔과 봉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규원 원장이 지켜온 나눔과 봉사 정신은 딸인 이근아 원장에게 유산으로 대물림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활동을 봉사라고 하지만, 이규원 원장은 ‘삶의 방식’이라 말한다.



“봉사라고 생각하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냥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도울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규원왕장

이근아 원장은 조동 2학년의 지적 수준을 가진 환자가 일곱 살 수준의 지적장애 친구를 데리고 치과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본인도 성치 않은데, 버스를 탈 줄 모르는 친구를 도와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죠.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위를 쳐다보며 불평하기보다 주변에서 하더라도 도울 거리를 찾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백팔

십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아왕장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자원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 할아버지 이경중 용에서 ‘인전소년병 6·25참전관’ 운영과 소외 계층 후원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이규원 원장을 거쳐 장애인 무료 진료를 하며 인전 127호 아너로 나눔의 삶을 시작한 이근아 원장까지, 나눔의 DNA는 3대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부녀 아너인 이규원·이근아 원장은 앞으로도 영구치처럼 톡톡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인전에서 시작한 부녀의 나눔이 더 많은 지역과 계층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본다. 🍀



남도의정이가득한 착한가게

진한 맛의 정수, 광주 맛집

빛고을광주는 예로부터 남도의
깊은 맛이 모이는 맛의 본고장이다.
어디 그뿐이라. 따뜻한 정에 넉넉한
안심까지 모이고 모여 넘친다.
그곳이 광주다.

글정은 전사·전사장의얼매

브런치 명소 크라비앙코

▶ 광주시 동구 지호로 132 062-229-7800
▶ 매일 11:00~22:00

아름다운 무등산자락 아래
자산유원지에 자리 잡은
크라비앙코는 광주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브런치 명소다. 푸르른
정원에 들어앉은 하얀색 2층 단독
건물은 이전에 웨딩 스튜디오로
사용한 곳답게 근사하다. 1층은
갤러리 카페, 2층은 프라이빗한 좌식
공간부터 너른 테이블 공간까지
다양하게 갖춰 가족, 연인, 단체
등 어떤 모임이라도 즐기 좋다.
거기에 맛은 기본, 가성비 만점의
메뉴 구성이 돋보이는데, 특히
점심 특선이 인기 높다. 꾸덕꾸덕한

소스에 베이컨과 브로콜리,
버섯, 양파 등이 꾸밈하게 든
카르보나라와 아메리카노 세트가
1만 원이다. 또 브런치 메뉴를
주문하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한다. 크라비앙코의 시그너처
메뉴는 단호박과 치즈로 속을 꽉
채운 칼초네 피자도 와 위에 신선한
시금치와 토마토·양파·훈제
연어를 올리고 치즈 가루를 듬뿍
뿌려 내는 연어시금치 피자다.
더운 여름 크라비앙코의 시원한
인절미 빙수나 블루베리 빙수,
멜론 빙수도 별미다.



일부러 찾아가는 맛집 임마중 추어탕

◻️ 광주시서구 화운로155번길 7 ◻️ 062-366-5533

◻️ 매일 10:30~21:30



건 잘지은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곁들이는 반찬도 정성스럽다. 수고로움을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배추겉절이를 담그고, 어리굴젓을 새로 무진다. 추어탕 주문 시 서비스로 제공하는 고추추어튀김도 별미 중 별미. 강황으로 맛을 낸 강황삼겹보쌈 또한 인기 메뉴다. 얼마나 맛있기에 100여 평의 초대형 공간이 언제나 손님으로 가득 찰까. 직접 가서 맛으로 확인해보자.



광주시 서구 화정역 인근의 임마중 추어탕은 그야말로 단골들의 식당이다. 지하철역 근처라지만 식당 위치로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뒷골목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2층에 자리한다. 이는 오가다 들르는 뜨내기가 아닌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의 식당임을 의미한다.

진짜 맛집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추어탕이 있다. 국산 미꾸라지만 사용에 끓인 킬킬한 추어탕 국물 맛은 진하기 그지없다. 한 그릇 뚝딱하면 기력이 절로 회복되는 듯하다. 맛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건 돌솥밥이다. 무엇보다 쌀에 진심인 덕이다. 추어탕의 맛을 완성하는



맑은 국물의 감칠맛 노안삼대 나주곰탕

○ 광주시 서구 내방로252번길 8 062-384-5959
 ○ 24시간 영업(연중무휴)



고기 국물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라. 더운 여름 폭우려낸 고기 국물에 밥 한 그릇 푹푹 말아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을 정도. 국내산 한우 암소 뼈를 진하게 고아낸 노안삼대 나주곰탕 국물 이야기다.

대파와 깨소금음 등뽕 얹은 국물에는 소고기 양지머리와 내장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든든하다. 국물의 젓맛은 깔끔하고 뒷맛은 진하다. 곰탕에 곁들이는 김치는 깍두기와 배추김치, 파김치까지 세 가지나 제공해 입맛대로 즐기 좋다. 특히 파김치를 좋아하는 손님이 많다. 우설과 양지머리, 머릿고기 등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수육의 식감이 정말 부드럽다. 부추와 곁들이 초장에 찍어 먹으면 고기와의 어우러짐도 기막하다. 나주곰탕과 수육곰탕, 수육, 단 세 가지 메뉴로 승부하는 진짜 전문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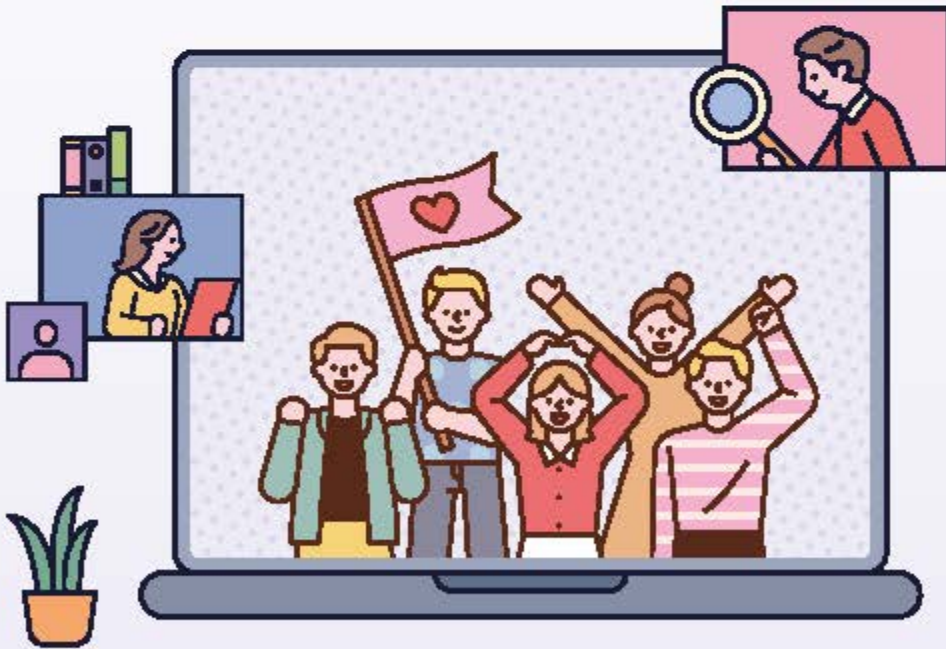


서비스 종료 후 남은 후원금 기부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 홍준서 씨

“이용자가 행복한 사이트도 만들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사이트 '코로나 라이브'를 2년여 만에 종료하고, 남은 후원금은 모두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을 위해 일한 대학생 운영자 홍준서 씨 이야기다.

글: 장은진 사진: 홍준서 씨 | 코로나 라이브 인스타그램(@corona_live_official) 제공





— 지난 2년여간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준 '코로나 라이브는 (재)홍준서(사진 왼쪽) 씨가
주로 만들어 운영해온 사이트다

이용자와함께 한 기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코로나 라이브'가 공식 종료됐다. 2020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확진자, 사망자, 입원 환자, 위중증자 등 실시간각 변하는 집계치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준 곱다운 사이트다. 무엇보다 일반 대학생이 혼자 사이트 개발부터 제작, 운영까지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바로 홍준서 씨다. "개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컴퓨터공

학과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바로 코로나19가 터졌어요. 평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던 터라 처음엔 실시간 확진자 동선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 맵 라이브'로 시작해 코로나 라이브를 열게 됐습니다." 평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던 그는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 마지막까지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었다. 서버 운영비로 받은 후원금 전액 전부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것이다.

은 후원금은 꼭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지난 2개월 동안 모아주신 돈이라 이용자와함께 기부한 것 같아 더욱 뜻깊습니다."

홍준서 씨는 후원금을 자신이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단체에 전달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줄 기관을 원했다. 그리고 여러 곳과 상담한 후 진행 사항까지 공유해주는 사랑의열매를 최종 선택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직접 봉사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물론 코로나 라이브 역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였죠. 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개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홍준서 씨, 모두를 이롭게 잘 그의 다음 도약이 기대된다. 🍀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개발자될 것

코로나 라이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corona_live_official)의 마지막 피드는 사랑의열매 기부증서다. 기부금액은 41,368,901원으로, 1원 단위까지 적힌 액수가 인상적이다.

"처음부터 서버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비용은 기부하겠다고 공지했어요. 서버 비용만 충당에도 감사했기 때문에 남

부동산 운용업계 신성 기업, 나눔의 리더가 되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의 경영 철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하는 만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때문.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처럼 나눔을 기반으로 더 큰 도약을 꿈꾸는 기업이다. 글꼴보라 사진 헤리티지자산운용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나눔영문기업 가입
1년 만에 실버에서 골드 회원으로 승급하여
나눔 확장을 이어갔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 자산 운용사로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톱티어급 회사로 성장했다. 가파른 성장과 함께 활발한 기부 활동도 눈길을 끈다. 특히 한 해 당 기준이익의 10%를 저소득층이나 비영리법인 등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지난해에만 10억 원 상당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사랑의열매에 3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84호의 실버 회원이 됐다. 이후 1년 만에 2억 원의 추가 기부로 신규 골드 회원으로 등재됐다. 송헌석 대표는 "기업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만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자는 게 회사의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계속 기부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운영 철학 덕분이다.

시설 입소 아동의 상처를 모듬은 미술 심리 치료

시설 입소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 애체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정 폭력이나 가정 애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입소 아동 전원에게 미치지 않아 시설 입소 아동에 대

한 심리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이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원하는 아동 미술 심리 치료 '그리고 자라고'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입소 아동(7세~초등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미술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미술 치료사가 입소 시설을 방문에 행동장애를 겪거나 우울·불안 지수가 높은 아동에게 개인 미술 치료와 집단 미술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미술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맞춰 조형물을 만들고, 색을 칠하는 놀이를 통해 진밀하게 심리적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어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상황이라 우울감이 깊어지는 코로나 블루도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얻었다.

1, 2 항목 시설 입소 아동의 미술 심리 치료인 '그리고 자라고'는 다양한 미술 활동으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자라고'의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리고 만들어 말할 수 있었다. 풍파를 견디고 우뚝 선 아름드리나무처럼 말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일대일 맞춤 지원

에리티지자산운용의 후원이 눈에 띄는 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지원의 시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 상황에 따른 일대일 맞춤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드비전의 '위기 아동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의료 및 긴급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어린이와 가정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해당 가정의 시급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



을 통해 작년에만 위기 아동 20명이 직접 혜택을 받았다. 언어장애와 뇌병변 경증 장애 진단을 받은 A 양에게는 재활 치료비와 관리비 3개월 미납분을 지원한 바 있다. A 양의 보호자는 "남편의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공과금이나 대출금 등이 체납되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공과금 지원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지 않아 한숨 돌릴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치료비 외에 체납 관리비 지원 등 생활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체, 체납 등 극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차상위 계층 제도 신청 등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열여덟 '어린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돕다

보육원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던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들은 하루이 집에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어린 어른'이 된다. 이렇게 매년 2,500~2,700명의 어린 어른은 퇴소 시 지급받는 500만~8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으로 생활해야 한다.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으로 인한 불안

1 각 단차의 기부 명의로 가족안사채 증권장 모습 2 월드비전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일피어스'에 가입해 기업과 위기 아동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3 희망복지지원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HERS'클럽에서는 재난 피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 싸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올해부터 보육원 퇴소를 앞둔 어린 어른에게 정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송현석 대표가 직접 보육원을 방문에 청소년들에게 기부금과 함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는 격려의 말을 전한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은 서울 시내 7개, 경기 용인시 1개 등 8개 보육원과 협력에 만 18세가 된 청소년 5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자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에리티지자산운용의 지원이 더해져 50명의 어린 어른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나눔리더로 더 큰 도약을 꿈꾸는 기업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이는 에리티지자산운용이 추구하는 사회 공헌 철학과도 닮아 있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은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외에 각 단체가 정하는 고액 기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월드비전 '밥피어스아너클럽(Bob Pierce Honor Club)' 회원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아너스클럽(Honors Club)' 회원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현석 대표는 "기업이 수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크나큰 축복이고, 기부는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며 "에리티지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에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수익을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데 사용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에리티지자산운용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은 이런 선한 영향력 때문이다. 나눔리더로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에리티지자산운용의 행보에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보낸다. 🍀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만들기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참여하기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실인적인 폭염과 가뭄, 대규모 침수피해 등 이상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먼 미래 이야기 같던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을 시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섰다. 글이연희 사진사장의열매, SBS

-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전략모금본부 이장순 본부장, SBS 유영석 시사교양본부 부장, NFT 아티스트 김명진 작가, 사랑의열매 조홍석 회장, NFT 아티스트 김일동 작가, 글로컬인 기부 플랫폼 차리 이수정 대표이사, 수영 선수 박태환





지난 5월 25일 사랑의열매가 SBS 희망TV,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와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금을 전개한다.

모든 성금은 탄소 중립과 저로 웨이스트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와 기부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모금을 전개한다. 5만 원 이상 일시 기부 또는 5,000원 이상 정기 기부를 약속한 기부자에게 사랑의열매 고유 마스코트인 열매둥이를 활용한 그린열매 NFT를 기부증서로 발급한다(선착순 5,000명). 그린열매 NFT는 환경을 테마로 각기 다르게 디자인했으며, 기부자는 1번부터 5000번까지 자신만의 특별한 번호를 선택에 받을 수 있다. NFT 작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김일동·김명진 작가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힘을 보탤다. 출범식에서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사랑의열매는 그린열매 NFT 캠페인으로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부를 밝혔다. 🍓



캠페인 1호 기부자는 누구?

수영 선수 박태환이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에 1호 기부자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개그맨 이승윤·정성호·이상민·이상호, 배우 윤은혜·윤소이·박탐희, 방송인 최승현, 크리에이터 슈카 등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그린열매 NFT를 발급받았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면?

- ①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또는 기부 플랫폼 체리에 접속
- ②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후원하기 버튼 꼭 누르기
 - 5만 원 이상 일시 기부 시 그린열매 NFT 발급
 - 5,000원 이상 정기 기부 시 그린열매 NFT 발급
- ③ 11월 30일까지 참여하기 (단, 한정판 그린열매 NFT 5,000개가 모두 발행되면 즉시 종료됨)

SBS 희망TV와 사랑의열매가 만났다?

지난 6월 10~11일 이틀에 걸쳐 SBS 희망TV에 이번 캠페인이 소개됐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인 박태환 선수가 진행을 맡은 것은 물론, 방송인 최승현과 함께 해양 정화 봉사 활동에도 나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방송 기간에 맞춰 희망TV 메타버스 공간에 캠페인 소개가 담긴 사랑의열매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그린열매 NFT 나눔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명예의 전당에 기부 내용이 게시되는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다채로운 이벤트로 시청자, 특히 MZ세대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제13대 박철홍 신임 회장 취임

“나눔이 일상이 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이 광주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광주 아너 18호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부인 (주)골드클래스문화재단 임성자 이사장과 장남 보광건설(주) 박상균 대표이사, 차남 골드종합건설(주) 박수범 이사까지 아내에 가입하여 부부 아내이자 패밀리 아너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



— 지난 5월 30일 광주 사랑의열매 제13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가운데)

❶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의 열악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애소하며,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지회장들이 펼쳐온 나눔이 일상이 되고, 살기 좋은 건강한 광주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홍 신임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인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주택건설의 날 산업부장관 표창, 국가유공자 주거 여건 개선 사업공로 표창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골드클래스(주) 회장, 전남매일 회장,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광주상공회의소 제24대 부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❷ 광주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 사랑의열매는 11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하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❸ 회장님의 나눔 철학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도입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입니다. 하지만 빠른 국가적 성장을 도모한 만큼 사회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고, 매년 기부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나눔문화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를 염원하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전한 따뜻한 희망

사랑의 열매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약 114만 달러 (약 15억 원)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국제천리민간협회(KCOC)를 거쳐 현지에서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개 단체에 전달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물론 루마니아·몰도바 등 인접 국가로 피신한 난민을 긴급 지원하며, 그들의 일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돕고 있다.

글: 이연희 사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 1 폴란드 루블린 지역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한 주거 지원(사진 제공: 기아대책)
- 2 난민 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진행 모습(사진 제공: 굿네이버스)
- 3 난민 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제공한 선물(사진 제공: 굿네이버스)



3

루마니아 유입 난민 보호를 위한 긴급 구호 굿네이버스는 루마니아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한다. 또한 난민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루마니아 도시 지역 우크라이나 난민 식량 및 위생용품 지원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대응팀은 부쿠레슈티, 이아시, 콘스탄차 내 1만 2,000여 명 도시 난민을 대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조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난민보호센터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



2

우크라이나 피란민 식량 키트 배분 및 주거 지원 기아대책은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폴 및 인근 지역 피란민 1만 640명에 식량 및 비식량 키트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폴란드 루블린 지역으로 피란 온 난민 896명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 피란민 긴급 구호 하트-하트재단은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 1,400명, 빈니차 지역 1,300명 난민에게 2주 분량의 식량을 제공하며 신속한 구호를 펼치고 있다. 또한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으로 피신한 난민 435명에게도 2주 분량의 식량을 전달했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가득한 삼계탕을 지원하는 펀딩을 진행한다. 글이변희 사진사랑의열매



어르신의건강한 여름 나기를 응원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6월 27일~7월 31일
목표 금액 300만 원
모금 사용 삼계탕 300만분 구입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크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어르신의 무더위 영양관리를 위한 삼계탕 지원 복닭복닭! 삼계탕 왔데이(Day)~

뽏뽏 찜는 듯한 찜통더위로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계절입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겐 치명적인 계절이지요. 옛말에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에 삼계탕을 먹으면 그해의 더위를 물러진다는 말이 있듯, 삼계탕은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힙니다. 취약 계층 어르신들이 약해진 체력을 보충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삼계탕이 꼭 필요합니다. 어르신께 영양 가득한 삼계탕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태면 어떨까요. 🍷

7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
경기북부
강원
서울
인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장학금 기부한 나눔명문기업(주)넥스틴 박태훈 대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힘을 보탬 것”

나눔명문기업을 시작으로 애너 소사이어티,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등 궁극한 기부들 연이어 하는 기업이 있다. 창업 10년 만에 첫 흑자가 나면서부터다. (주)넥스틴이다.

글:정은진 사진:김기남, 경기사랑의열매

첫 흑자, 나눔부터 실천해

(주)넥스틴이 경기사랑의열매에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넥스틴 본사에서 (주)넥스틴 박태훈 대표와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및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명문기업 1억 원 완납에 따른 인증패도 함께 전달했다. (주)넥스틴은 따뜻한 나눔의 강자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다. 2021년 10월 경기 사랑의열매 17번째 나눔명문 기업을 시작으로, 두 달여 만에 박태훈 대표의 아내 소사이어티 가입과 연말연시 이웃 돕기 성금 5,000만 원 그리고 이번 장학금까지 굼직한 기부를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실천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10년 만에 처음 흑자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 나눔을 실천에 더 화제가 됐다. "창업할 때부터 회사가 흑자를 내면 1%

“꿈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꿈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소외 계층 아이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주)넥스틴 박태훈 대표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웃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 될 것

박태훈 대표는 (주)넥스틴의 임직원이 나눔에 더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회사 차원의 공식 기부를 진행하기 전부터 개

인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정기적으로 하는 기부는 물론, 봉사 활동에까지 참여해 온 직원이 많다면서 말이다. 이들은 사내 카페에 이웃 돕기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일화성이 아닌 지속적인 (주)넥스틴의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업의 기부는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크고 작은 도움을 사회로부터 많이 받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박태훈 대표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 어느 때보다 (주)넥스틴의 성공을 응원하게 된다. 이웃을 위한 보다 더 큰 1%의 나눔을 위해서다. 한편, (주)넥스틴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전문 기술 기업이다. 🍀



— 지난 6월, (주)넥스틴은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사진은 전달식 모습

중증 장애 아동 위해 봉사 나선 아너 회원

경기도포천시 '노아의집'에서
2022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글: 장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봉사로 나눔 실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해 나섰다. 중증 장애아동들과 함께 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중증 장애 아동 생활 시설 '노아의집'에서 2022년 정기 봉사 활동이 있었다. 회원들은 장애 아동 식사 보조와 산책, 시설 환경 미화 등을 진행했다. 노아의집은 만 3세부터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 57명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내 아동들은 현관문 앞조차 쉽게 나서지 못했다. 또 봉사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의 도



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아너 회원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더 얻는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아의집 관계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시설 문밖을 나설 수 있는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매년 정기 봉사 활동을 통해 기부금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

1 정기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들 2 중증 장애
아동의 식사를 돕고 있는
아너 회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내 마음 치유기’

3년간 진행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노인암 질환자 돌봄
가족기획사업 ‘내 마음 치유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글 장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병간호에 지친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노인 암 환자 돌봄 가족의 스트레스를
애소하고, 정서를 강화하기 위한 ‘내 마
음 치유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
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돌봄 가족의 사회적 돌봄을 주제
로 지원해온 전국 기획 사업이다. 교양시
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
인 암 환자의 돌봄 가족에게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에 자기 관리 능력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집단 활동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파
견해 기사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틈새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밖에
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노
인상담사, 운동지도사를 활용에 역량 강
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정서강화를 위한
심화미술치료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58명의 돌봄 가족을 발굴하고, 1,342명
의 돌봄 가족이 사회적 돌봄 혜택을 받
았다. 또 돌봄 가족의 돌봄 전후 측정 결
과 스트레스는 평균 9.95(88점 기준), 우
울감은 평균 126(60점 기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

“암 환자를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내 마음 치유기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 돌봄 가족 A 어르신

— 돌봄 가족의 정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치료가 이뤄졌다



착한가게 26개소 단체 가입이 끝어낸 원주시 나눔봉사단

“원주시 나눔문화 확산의 주축 될 터”

원주시 나눔봉사단이 착한가게 26개소들 단체
가입시켜 화제다. 이로써 강원 사랑의별매 착한가게는
1391호를 달성했다. 글감은진 사진공원사장의앞에

서동성 단장과 봉사단원들이 받은 원주시 나라안터카 작업차기 보관 전달식



“우리 동네가 보다 따뜻한 정으로 넘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

-건축사 사무소 담아 박승철 대표



다양한 업종에서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은 건축사 사무소 담아 연판 전담석

착한가게 캠페인 적극 나서

원주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원주시 나눔봉사단이 화제다. 지난 1월 26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린 원주시 나눔봉사단장 이·취임식에서 김종태 단장이 이임하고 서종성 신임 단장이 취임했다. 이날 서종성 단장은 “원주시 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중력을 기울이겠다”며 나눔의 포부를 밝혔다. 이후 서종성 단장의 취임사처럼 원주시 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총 26개 업체가 착한가게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 업체는 (주)인스 •건축사 사무소 담아 •건축측량

설계공사 •영덕산업 •나라렌터카 우산점 •모던카 문막점 •모던카 단구점 •에피포스 •삼우사번호판제작소 •휴먼카모터스 •옛골기든 •인덕한의원 •구학닭갈비 •잠솥골 •로댐인테리어 •대보짬뽕공화국 •디저트39 무실점 •(주)코

웨이 •ROAD GYM •디자인점 •우성애여성의원 •중앙주유소 •우주산전 •중앙측량설계공사 •애송 •싸이러스 등이다.

행복한 원주시 위해 모두 동참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랑의열매 소상공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원주시 나눔봉사단을 통해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을 실천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로 모금한 기부금은 원주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종성 단장은 “지난 2014년 7월에 발족한 원주시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단체 가입으로 나눔문화가 지역 전체로 퍼져 모두가 행복한 원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가입을 통해 강원도에서 기부를 약속한 착한가게는 139호를 달성했다. 🍀

“오랜 시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착한가게로 동참하게 돼 기쁘다.”

-나라렌터카 이동균 대표

'2022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3년 만에 모임 재개

"Again,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19로 중단한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활동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다.
글썩은 전 사진서를 사랑의열매



1 아너소사이어티 1기 회장님 역임한 인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 3년 만에 열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



함께 영화 관람 행사도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Again,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서는 운영 보고와 신입 회원 소개 및 2기 회장단 선출 등을 진행했다. 신입 회장에는 (주)마크로통상 대표이사 예승유 아너, 부회장에는 (주)메디씨앤씨 대표이사 심재원 아너,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윤성철 아너가 선출됐다. 이어 1기 회장인 (주)인씨 대표이사 안병근 아너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아너 회원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도 이어졌다. 지난 6월 12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 서 서울 아너 회원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함께 2022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영아너분과 정정모(정년을 돕는 정년들의 모임) 주최로, 정정모 회원 영화 홍보 마케팅사 (주)퍼스트룩이윤정·강효미 공동대표가 극장 대관을 제공하며 이뤄졌다. 🍀

서울 사랑의열매에 장애인의족 지원 기부금 전달한 AIA생명

AIA생명의 장애인외족 지원 사업
'드림 어게인'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글감은진 사진서울사랑의열매

드림 어게인

AIA생명은 장애인 외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6월 10일, 경기도 양평군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AIA생명 박정진 대표, AIA생명 MDRT(백만 달러원탁회의) 운영진 정성숙 회장, 서울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AIA생명은 2017년부터 절단 장애인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드림 어게인(Dream Again)'을 통해 양궁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댄스 스포츠 선수,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특수

학교교사 및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약 33명의 절단 장애인에게 외족을 지원했다. 누적 기부 금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기부금은 MDRT 달성 마스터플래너 180명이 모금에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AIA생명 MDRT 운영진 정성숙 회장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이라는 절락을 실천하는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에 마스터플래너들도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드림 어게인을 통해 절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드림 어게인' 기부금 전달식, 사진은 박정진 AIA생명 대표(왼쪽),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경기도 양평군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진행된 드림 어게인 기부금 전달식 모습



야구로 희망을 전하는 SSG 랜더스 추신수·한유섬 선수

“홈런, 안타, 도루, 볼넷까지… 모두 나눔을 위해!”

SSG랜더스 추신수·한유섬 선수가
취약 계층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나섰다.
야구로 희망을 전하는 진짜 슈퍼맨을
만나보자. 글은 인천 사진인쇄사장 의열매

— 지난해 드림 랜딩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도 '희망 랜딩 캠페인'을
진행하는 추신수 선수(오른쪽)의 인천 사랑의글에 조상범 회장이
함께한 전달식 기념 촬영을 했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랜딩 메이트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유성 선수(오른쪽)와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이 캠페인 전달식 기념 촬영을 했다

이웃을 위한 좋은 기록

SSG랜더스 주신수·한유성 선수가 나눔과 함께하는 KBO 시즌을 보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인천 사랑의열매와 함께 야구 꿈나무와 소외 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드림 랜딩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신수 선수는 올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희망 랜딩 캠페인'을 진행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희망 랜딩 캠페인은 정규 시즌 동안 볼넷 1개당 1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취약 계층 병사 지원'과 홈런 및 도루 각각 1개당 1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취약 계층 병사 지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된 병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주신수 선수가 기획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무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검정

고시와 자격증 취득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주신수 선수는 "작년에 이어 올에도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좋은 기록을 달성에 더 많은 분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의 랜딩 메이트

SSG랜더스 주장 한유성 선수도 나눔에 동참한다. 바로 '랜딩 메이트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 양육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돼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랜딩 메이트란 한유성 선수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 랜딩하는 순간 메이트로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부금은 정규 시즌 144경기에서 기록한 1타점당 10만 원이 적립되며, 시즌 종료 후 인천 지역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한다. 한유성 선수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캠페인



을 통해 보다 많은 분이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인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는 주신수·한유성 선수에게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7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지역사회와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든든한 나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유일의 종합교통안전전문 기관으로, 육상·항공·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교통안전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한층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기관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글 이연희 사진이순재, 강복 사랑의열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권승복 이사장(가운데)과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사람이 먼저일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7호 나눔명문기업이 된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 지난 3월에 전상관 나눔명문기업 기업서

지역사회 나눔을 선도하는 1호 나눔명문기업

지난 나눔 활동을 돌아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북 사랑의열매는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저소득 가정 명절 제수 비용 지원, TS 꽃동산 조성사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차량 지원,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식품을 기부하고 가져가는 까치밥 나눔냉장고 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다. 특히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TS-WITH 봉사단과 지역 주민이 함께 꽃과 나무를 심으며 지역 환경개선에 나선 TS 꽃동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언급될 정도로 사내 반응이 뜨거웠다. 후문이다. 놀랍게도 앞서 언급한 모든 활동은 경북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것만에 진행했다는 사실. 절벽같은 협업 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3월 29일 또 한번 의미 있는 나눔 발자

취를 남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 7호이자 감전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공익 가치를 선도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활동 전개할 계획

경북 사랑의열매와 손잡기 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매년 기부금 예산을 편성하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과 주민이 함께 꽃과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나선 TS 꽃동산 조성 사업

며 안정적인 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ESG 경영 강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실행하며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특징이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역 소외 계층 지원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공단 주요 사업 연계를 2022년 사회 공헌 활동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3대 추진 방향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기부를 지양하고, 경북 사랑의열매와 협업에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한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앞으로 그들의 나눔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폭력 피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아늑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폭력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원 사업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락한 심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등 더 이상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선희 사단장님 사랑의열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여성가족부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로 매우 적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신고하는 게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주시가정폭력상담소는 경남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학교 상담 및 담당 교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공무원, 법률 사무소 종사자,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등 가정 폭력 신고 의무가 있거나 피해자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 폭력에 대한 기본 이해, 문제 상황 및 피해자를 대면할 경우 대처 방법, 지역 내 연계 자원 등을 전달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한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포근한 집자리, 편안한 상담실’

경남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미들은 19~23세 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사설로, 입소자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2인 1실로 사용하는 터라 개인 공간이 부족하고, 짐대가 아닌 바닥 생활을 하며 위생과 정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공간이 따로 없어 상담 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이에 경남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2층 짐대를 구입했다. 2층 짐대는 입소자에게 개인 공간이 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준다. 또한 상담 테이블을 마련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안락한 상담실을 만들었다. 입소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생활하다 보니 불편하고,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다. 2층 짐대를 써보니 개인 공간이 생겨서 좋다"며 "새로 생긴 상담실에서 앞으로 선생님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학습 환경 개선 사업 ‘꿈꾸는 공부방! 슬기로운 집콕학습’

우리아이집은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다. 생활관 중



2층 짐대를 구입한 주거인 공간이 확보된
경남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미들

준자립관은 퇴소를 앞둔 19~20세의 입소자가 스스로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가구(짐대, 책상, 의자)는 2010년 개소할 때 구입한 제품으로, 노후되어 입소자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 최근엔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과제물을 출력해야 할 일이 많지만, 6~7명이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남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노트북, 프린트기, 짐대, 책상, 의자를 구입했다. 덕분에 입소자는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올해 고3 학생인 한 입소자는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셨다"라며 "앞으로 자기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초고액 아너가 된 청맥병원 박용범 병원장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한 더 큰 나눔

부산사랑의열매에 여섯 번째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박용범 청맥병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 특히 그는 개인 당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을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글이연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부산 사랑의열매
최은숙 회장 박용범 청맥병원장
(오른쪽부터) 김다진 대표



품격 있는 나눔문화를 만드는 어머니들

부산 사랑의열매에는 고액 기부자 프로그램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외에도 초고액 기부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아너 가입을 계기로 기부를 이어가는 회원이 많아질 바라며 초고액 기부자 클럽을 만든 것. 3억 원 이상의 누적 기부를 약속하면 초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하게 되며, 3억 원 이상 하이클래스 아너, 5억 원 이상 노블레스 아너, 10억 원 이상 프레스티지 아너로 구분한다. 지난 5월 27일 박용범 정맥병원장이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2013년 부산의 30호 아너 회원이 된 그는 2017년 부인인 (주)푸르메 김에진 대표가 아너에 가입하며 나란히 부부 아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2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품격 있는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인솔

박용범 병원장이 운영하는 정맥병원은 하지정맥류, 동맥 질환, 투석 질환, 혈관 질환 등을 진료하는 곳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으로 꼽힌다. 이처럼 유명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건강한 삶까지 생각하는 진료 등 의술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함께 더 멀리'라는 병원 이념에 따라 따뜻한 인솔을 펼치기 때문. 아주 노동자를 위한 의료 봉사과 의료 자문 등에도 기꺼이 동참하며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박용범 병원장의 이번 기부도 인솔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초고액 기부자 클럽 가입식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을 자주 뵈는데, 저의 나눔이 바탕이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범 병원장의 초고액 아너 회원 명폐에는 병원 이념이기도 한 '함께 더 멀리'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혼자 가면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 그러기에 그의 나눔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

“저의 나눔이 바탕이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정맥병원 박용범 병원장



— 박용범 병원장의 나눔 메시지 '함께 더 멀리'가 새겨진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 영배

부산 사랑의열매 초고액 기부자클럽 회원

- 1호 (주)에스제이뱅크 박성진 대표이사
- 2호 굿모닝대신리츠(주) 이대광 CEO
- 3호 한일냉장(주) 오종수 회장
- 4호 (주)보명파네티 이경화 대표이사
- 5호 에스디랩코리아(주) 이도환 회장
- 6호 정맥병원 박용범 병원장

대구 204호 아너 (주)신행 김은주 대표이사

“나눔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난 4월 (주)신행 김은주 대표이사가 대구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204호가 되었다. 그보다 앞서 아너에 가입한
남편 (주)신행건설 정영화 회장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 이로써 두 사람은 대구의 18번째
부부 아너 회원으로 등재됐다. 글이 전해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부부 아너가
된 (주)신행 김은주 대표이사와
(주)신행건설 정영화 회장



“나눔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 (주)신행 김은주 대표이사



남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정영화 회장이 설립한 (주)신행건설은 도로 및 교량 보수·보강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현재는 정영화 회장과 부인인 김은주 대표이사가 함께 자회사인 (주)신행, (주)화인, (주)신행리버텍을 운영하고 있다. (주)신행건설과 자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과 포장공사업, 금속장호공 사업, 친환경 합성목재 방음판 및 데크 생산 등 다양한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15년간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29건의 건설 및 산업 관련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스콘 현장 재생 포장 장비 개발 및 시공 방법 분야에서 정부 R&D(연구 개발) 사업을 주관하면서 건설 폐기물인 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자체 기술 개발에 중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영화 회장은 이 같은 성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눔은 궁극적으로 우리

의 행복이며, 사업하는 사람의 자부심이다”고 말하며 회사 장립 이후부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려고 노력해왔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 김은주 대표이사도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지난 4월 25일 (주)신행건설 정영화 회장과 대구 사랑의열매 김누리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신행 김은주 대표이사의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진행됐다. 아너 가입식 전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소리소문 없이 아너에 가입한 남편처럼 조용히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눔을 알려야 지역 사회 내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대구 사랑의열매와 회사 직원의 의견에 동의해 가입식을 하게 됐다. 가입식에서 김은주 대표이사는 “주위에 서 많이 도와주셨기에 회사가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물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며 “남편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정영화 회장과 김은주 대표이사. 이제는 부부 아너로서 함께 나눔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

신규 아너 3명 동시 가입

선한 영향력이 불러온 나눔 릴레이

지난 5월 12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10주년 기념 총회가 열렸다.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 울산 아너 클럽 박희규 회장 등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아너 합동 가입식이 진행됐다. 아너 회원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특별한 사자를 알린 세 사람을 소개한다.

글이연희 사진울산사랑의열매



— (왼쪽부터) 고려철강(주) 김태현 대표이사,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 코리아에어터보(주) 조희숙 대표이사, (주)한송개발 김형욱 대표이사

우연히 맺은 따뜻한 나눔 인연

이번 아너 클럽 총회에서 진행된 합동 가입식에 참석한 코리아에어터보(주) 조희숙 대표이사, 고려철강(주) 김태현 대표이사, (주)한송개발 김형욱 대표이사는 특별한 나눔 인연을 맺었다. 먼저 아너 가입을 결심한 건 조희숙 대표였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오래 기억하고자 어머

님의 생일인 1월 11일을 조립한 11호 아너로 가입했다. 그의 아너 가입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진진한 파장을 일으킬 무렵 우연한 기회에 김태현 대표에게도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주변에 아너 회원이 된 지인들이 있어 울산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조희숙 대표의 가입은 그가 아너 가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눔을 실천하기 전 김태현 대표는 친구인 김형욱 대표를 떠올렸다. 즉시 아너에 함께 가입하자며 권유했고, 김형욱 대표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세 사람은 아너 가입식을 마치고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걸 진작 알았다면 더 빨리 가입했을 텐데"라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을 알리고 싶다는 세 사람. 아너 가입식은 끝났지만 그들의 나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울산아너소사이어티 111호
코리아에어터보(주) 조희숙 대표이사**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0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 산업포장을 받았다. 예년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아너소사이어티 112호
고려철강(주) 김태현 대표이사**

신밀반산업단지협의회 사무국장,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기업간 소통에 기여하는 한편, 울산 공업탐로타리클럽, 울산 청동라이온스클럽 등 다양한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산업평화대상어 선정돼 수상한 바 있다.

**울산아너소사이어티 113호
(주)한승개발 김형욱 대표이사**

무어타이 세계 킥복싱 대회, 태화필극회, 춘자몽라이온스클럽 등 다양한 문이어서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2022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신규 아너 회원 3명과 함께한 2022 울산아너소사이어티 클럽 10주년 기념 총회



7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지역 개발 리더에서 나눔의 리더로 거듭나는 충북개발공사

“도민을 위한 사회 공헌,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충북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충북 대표 공기업,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의 리더로서 말이다.

글쓴이: 진 사진사(한계, 충북사장의얼매)

도민 위한 16년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랑의열매> 7월호 표지로 나섰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지만, 공사의 특성상 도민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는 자리는 드물었다.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은 이번 기회가 이웃들과 진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라며 반가워했다. "우리나라 복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랑의열매에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이웃

들과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알리고,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상철 사장은 "충북개발공사는 '新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 개발 리더'라는 비전 아래 충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상철 사장의 말처럼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설립한 이래 지난 16년 동안 오로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만을 목표로 다양한 일을 해왔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돋보여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단지이자 세계적 바이오산업 허브로 성장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250여 개의 기업 유치 및 5만 5,000여 명의 고용 효과 창출, 1만 8,000세대대의 주택용지를 보급한 6개 사업 지구의 산업 단지외 주거 단지 등은 충북개발공사의 대표적 성과다. 출범 당시 자본금은 52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 규모는 3,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에 그간의 성장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충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주, 진전 등

중부권부터 제전, 충주 등 북부권 및 보은, 옥천 등 남부권까지 산업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 정주의 오랜 숙원 과제이던 밀레니엄 타운을 조성에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린 것도 큰 성과로 기억합니다."

이상철 사장은 충북개발공사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먼저 2011년, 충북개발공사는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희망사랑봉사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봉사 활동에 뛰어들었다. 또 2012년에는 충북사랑의 열매와 직한일터 업무 협약을 맺고, 임

직원의 급여 일부를 십시일반 모아 매달 정기적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소외 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도 눈에 띈다. 공사의 특성을 살려 벽지와 장판 교체는 물론, 화장실과 부엌 수리, 난방유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겨왔다.

다 함께 잘사는 충북 만들기

이뿐 아니다. 2011년부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충북의 농촌 곳곳을 찾아 사과 적과 작업, 순 따기 작업, 하우스 정비 등 농촌 일손 돕기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수해와 태

—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은 도민의 지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품 및 화재 등 각종 재·재난 상황에는 발 빠르게 쌀과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충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충북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저소득층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이나 도내 아동 그룹홈에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어린이 대상 후원도 지속적으로 애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문 복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이상철 사장은 지역 경제 발전뿐 아니라 도민의 복리증진도 충북의 유일한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9년 10월에 취임에 이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몇 달 앞둔 이상철 사장은 도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달려온 16년이었는데요, 이제는 나눔으로도 앞장서가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 일이 바로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일 아니까요."

이상철 사장은 마지막까지 도민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물론 그런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충북개발공사가 되겠다는 말이다. 나눔의 리더로 거듭나는 충북개발공사의 미래가 기대된다. 🍀

1 2022년 충북개발공사 장학금 전달식
2 농촌 지역이 많은 충북의 성장에 앞장
농촌 일손 돕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



“그동안 도민의 지지와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같은 고마운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충북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

희망의 보급자리 사업부터 김장 나눔까지, 지역사회 공헌하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행복이 가득한 집, 바로 우리 이웃의 집입니다!”

보령발전본부의 맞춤형 상생 협력사업이 눈길을 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은진 사진 송남 사장의 열매

— 2022년 6월 보령시 천북면에서 진행된 희망의 보급자리 상목이 가득한 집 22호 준공식





지역 맞춤형 나눔에 주력하는 보령발전본부, 사진은 준공식 행사 모습

“보령시 이웃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희망의 보금자리는 계속 들어설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보령발전본부가 되겠다.” -보령발전본부 정세환 경영지원차장

보령에 들어선 희망의 보금자리

지난 6월 13일, 보령시 전북면에서 제22호 희망의 보금자리 행복이 가득한 집 준공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발전본부 정세환 경영지원차장, 우준영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고준용 전북면장, 충남 사랑의열매 정희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22호 보금자리 주인공 A씨가 참석하 가운데 진행됐다.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소규모 공장에서 증식 조리를 비롯해 바지락 채취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거기에 종종 질환 자녀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A씨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은 매우 취약한 구조로 가족의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에 인정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한 세대였다. 이에 보령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충남 사랑의열매,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전북면

행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A씨 가족을 '희망의 보금자리 사업'의 22번째 행복이 가득한 집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지역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

한국중부발전(주)의 성금으로 진행되는 희망의 보금자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립식 하우스를 건축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에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2007년 1호 점을 시작으로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비롯해 보령발전본부, 신서발전본부, 신보령발전본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령발전본부는 '맞춤형 상생 협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육영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본사와 별도로 충남 사랑의열매와 '저소득 취약 계층 여성을 위한 '사랑의 핑크박스 여성용품 지원 사업' '저소득 청소년의 결식 예방을 위한 '10대 성장 프로젝트-내게온(溫)행복도시락' '치매 노인의 행방불명 방지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지원 사업' '김장 나눔 사업 등 여러 협업을 통해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보령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는 국내 전체 전력 설비의 3.5%를 차지하는 충남의 대표적 대규모 발전소다. ♡

소다수 나눔 집중 발굴 캠페인 전개하는 세종시 나눔봉사단

“소중한 다수의 기부, 이웃에게 큰 응원돼요!”

세종시 나눔봉사단이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에 이어 '소다수 나눔 집중
발굴 캠페인'을 전개한다. 적극적 활동으로
나눔문화들이르고 있는 이들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자. 글: 김은진 사진: 세종사랑의열매



1 착한가정 소상공인이기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는 봉사단원

2 2022년 4월,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 갈매역

소다수 단체 가입, 전국 최초

소중한 다수의 기부를 뜻하는 '소다수' 캠페인을 위해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 정연희가 나섰다. 지난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6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나눔봉사단은 '소다수 나눔 집중 발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나눔리더 및 리더스클럽 등 소중한 다수의 기부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다. 앞서 봉사단은 2020년 2월 전국 봉사단 최초로 착한가정 18가구, 착한가게 7개소, 착한일터 2곳, 정기 기부 5명, 나눔리더 6명을 단체 가입시키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지역 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봉사단

- 3 나눔봉사단의 착한가게 기부자
- 여우 싹등 모습
- 4 모금과 배분 싹등에도 참가하는
- 봉사단원들. 사진은 배분 행사



은 착한가게 20개소, 착한가정 및 정기 기부 등 10명, 나눔리더 및 리더스클럽 5명, 착한일터 2개소, 소다수 거리 캠페인 2~3회 등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봉사단원의 열정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이 좋은 예다.

지역사회에 자자한 나눔 열정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은 나눔봉사단이 직접 착한가게 98개소를 방문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현판을 정비하며 감사 인사로 소상공인을 격려한 활동이다. 봉사단은 캠페인 2탄으로 착한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샷을 찍어 세종 사랑의

열매 SNS에 홍보하는 '돈줄 캠페인'도 전개하며 소상공인을 유쾌하게 응원했다. 2015년 중단한 후 정연희 단장과 민경희 부단장을 비롯해 단원 28명은 소다수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모금 발굴과 음·면·동 한장 모금, 모금 및 배분 행사 지원과 연말 희망나눔캠페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웃을 위한 봉사단의 진심 어린 열정은 2018년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총회에서 시도 부문 우수 단체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정연희 단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세종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기부해주시는 착한가게 소상공인에게 고맙다"면서, "세종시 이웃을 위해 소다수 나눔 집중 발굴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위드 코로나 시대, 세종시 나눔봉사단은 나눔과 봉사를 더욱 확대해 행복한 도시 세종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 세종 사랑의열매 정연희 나눔봉사단장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행복을 나누는 일, 바로 나눔입니다!”



2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웃에게 꾸준히 전해온 진심의 온정을 느껴보자. 글쓴은 전 사진대연 사랑의열매

지역사회 위해 꾸준히 기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지역사회에 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2003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충청권역에 약 30억 원의 기부를 실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먼저, 2020년 11월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법인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대전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대전사랑동장(적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6년부터 150여 곳 경



— 2022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감사회 전달식

7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북
전남
제주
광주



라디오 전파를 타고 퍼지는 선한 영향력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의 특별한 나눔 주파수



—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 공개방송을 만드는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 전성재팀장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은 매년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개방송이 선보였다.
축하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그동안 모아온 성금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글이연희 사진박승효, 전북 사랑의열매



20주년을 함께한 <고마운 당신께>
 지난 5월 25일 전북도정 야외 공연장에서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사장 이정상, 이하 전북교통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공개방송 <고마운 당신께>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방송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공연장은 모처럼 관객으로 가득 찼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관객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았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공연에 출연진은 물론, 스태프들도 감격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오랜만에 청취자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전북교통방송은 민반의 준비를 했다.

전북교통방송은 개국 20주년 축하 공연을 위해 화려한 출연진을 꾸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북도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교통방송이 2017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돌기콘서트를 진행하며 모은 총 5,823만 4,000원을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4개 분야에 각각 1,455여만 원씩 지원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북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전북노인일자리센터의 이동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교육 장학재단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와 조손가정의 생계비로, 전북경찰청에서 범죄 피어로 생계가 힘든 가정에 생계비로 전달할 계획이다.

— 개국 20주년 공개방송에서
 다양한 기부금 전달식



나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2009년에 처음 시작한 교통사고 유자녀 돌기 콘서트는 이제 전북교통방송의 대표적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공개방송을 진행해 조성한 수익금 전액을 전라북도정 유관 부서의 주전에 따라 도내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생계비로 지원해왔다. 2016년까지 총 6,019만 5,260원을 156세대에 전달하며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교통방송이 도로교통공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어요. 아무래도 저



—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하자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개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희 방송 특성상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2009년 당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자 전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콘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장경하·년생제작국장

외부에서 보기엔 단 한 번의 콘서트에 불과하겠지만, 이 한 번을 위해 전북교통방송의 수많은 사람이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조명, 음향 기기, 무대 설치, 물론 출연자섭외, 콘서트 홍보 등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또한 콘서트에서 조성한 기부금을 전액 전달하기 위

해 제작비는 모두 전북교통방송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전달하는 기부금 그 이상을 기부하고 있는 셈이다. 초기에는 투입하는 제작비에 비해 모금액이 아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장경하 국장은 “콘서트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무형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그 뿐만 아니라 전북교통방송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었기에 13년간 변함없이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는 2017년

을 기점으로 작지만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16년까지는 그해 콘서트에서 모인 모금액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해 바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콘서트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나눔을 위해 몇 년에 걸쳐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렇게 2017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5,823만 4,000원을 지난 5월 개국 20주년 공개방송에서 전달했다. 여러모로 뜻깊은 이번 공개방송을 준비하면서 김현정 PD는 고민이 많았다고 말을 열었다.

“정취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금 전달식 등을 통해 저희의 기부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도 큰 과제였어요. 함께한 시민들이 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 번쯤 기부를 생각해보며,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어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회에 걸쳐 모은 성금만 총 1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전북 곳곳에 전파한 선한 영향력과 나눔문화 확산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전북교통방송 장경하 국장과 김현정·이진용 PD 등 많은 직원은 앞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콘서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여전히 고민이 깊다고 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전북교통방송의 나눔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

17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소년 지원

GS칼텍스의 참 따뜻한 응원

GS칼텍스가 또 한 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여수 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석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을 전달한 것 게다가 벌써 17년째 지원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 GS칼텍스의 진심 가득한 나눔 이야기를 전한다.

글이연희 사진전남 사랑의열매 광고차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 지난 4월 5일 전상관 2022년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





— 2014년부터 지원해 왔던 정소년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여수YMCA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발굴하고,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학생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깊게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GS칼텍스 전광민 노조위원장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

지난 4월 5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GS칼텍스 노동조합 전광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들과 오문헌 대외협력부부장 등 GS칼텍스 관계자,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 사업 대상 학교 4개교 교장, 교육복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이번에 전달한 지원금 5,000만 원은 GS칼텍스 노동조합원들이 성과급에서 마련한 기금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 마련했다. 특히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맞춤형 학습교실은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는 여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 및 석식 지원, 문화 체험, 진로 체험, 스포츠 활동, 역사 토론 및 논술 학습, 밴드부 및 퍼드아트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달식에서 GS칼텍스 전광민 노조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발굴하고,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학생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깊게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힘

맞춤형 학습교실 외에도 GS칼텍스는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수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복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저소득 취업 준비생을 위해 종식비를 지원하며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내 저소득 학생을 위해 석식비와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014년부터 취약 계층 청소년이 방과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수YMCA 청소년 방과 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과후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은 고른 영양 섭취, 다양한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며, 평화와 역사 감수성 함양,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한결같이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는 GS칼텍스가 있어 여수 청소년들의 꿈은 하루가 다르게 영글어간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의 취약계층에너지 지원 사업

“올여름 무더위도
걱정 마세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에 전기·가스요금 부담까지 이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9년째 취약계층에 독서기 전기료도 지원하며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돕고 있다. 글이변화사진계주사장의얼배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에 사용할 풍력자립발전 이익공유회기금 전달식



8년째 이어오는 대표적 여름 지원 사업

지난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에 사용할 풍력자원 개발 이익공유화기금 3억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 제주 사랑의열매 강지연 회장은 물론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기금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5개 기업대표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4년부터 8년째 이어오는 에너지 지원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지원하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장애인 및 조손 가구에 하절기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 가구와 조손 가구는 생활 패턴상 실내 생활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전기료가 부담돼 냉방 기기를 작동하지 않고 꼼짝없이 찜뚱더위를 견딘다. 자칫 근육통, 욕창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냉방 기기 및 의료 기기 사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민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하여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재원은 도내 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대금으로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조성한 3,000만 원가량의 성금을 더해 총 3억 3,000만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019년 4,222가구(가구당 3만 6,100원), 2020년 4,240가구(가구당 2만 6,300원), 2021년 4,573가구(가구당 8만 4,260원)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가구당 2회에 걸쳐 7만 원 내외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사랑의열매는 7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를 통해 신청한 가구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7~8월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정 제주의 바람으로 만들고 있는 기금을 더욱 뜻깊게 활용하고,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앞으로도 복지시설 및 에너지 소외 계층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

지역 경제와 복지발전 위해 헌신하는 광주은행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까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이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광주은행이다.
 —————
 글장은진 사진정주사랑의열매

— 광주은행은 광주 사랑의열매 광주광역시와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 협약을 맺고 귀덕가동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나섰다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 돋보여

지역사회를 위한 광주은행의 헌신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은 2001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현금 32억 4,400여만 원, 한물 3억 7,700여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였으며, 누적 기부금액은 36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취약 계층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탄소 포인트 기부은행'이 대표적이다. 광주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시민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포인트 기부 제도를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이 기부한 탄소 포인트 기부 금액만큼 후원금을 기부한다. '탄소 포인트 기부은행'은 광주은행이 전국 최초로 취약 계층 노후 시설 지원 및 취약 지역 정원 가꾸기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부금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맡는다.



1 탄소 포인트 기부은행 협약식 모습
2 카드 이용 금액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광주·전남 탄소포인트 기부은행'은 광주은행이 전국 최초로 취약 계층 노후 시설 지원 및 취약 지역 정원 가꾸기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부금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맡는다.

기부 문화 이끄는 은행

은행의 특성을 살린 기부도 눈길을 끈다. 바로 '광주·전남 탄소포인트' 사랑카드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2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고향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 및 광주광역시와 '광주·전남 탄소포인트' 사랑카드를 발행했다. 이 카드는 이용 금액의 0.5%를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어 지역민뿐 아니라 출향민에게도 인기였다. 이 밖에도 광주은행은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 모금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임직원 등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2019년 광주에서 개최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티켓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에 동참해왔다. 연말연시 사랑의열

매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 나눔 캠페인에 광주은행은 광주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성금 8,400만 원을 전달에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이라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2521호(경기 241호)



전태식 통산교회 목사

“예수님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전국 2819호(경기 277호)



남상일 피자헛 안산성포점 점주

“나이 것을 나눔으로써 희망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2899호(제주 129호)



고만행 영주등산(주) 대표이사

“나눔은 여생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전국 2910호(서울 360호)



윤재용 양재해장국 대표

“나눔이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국 2911호(전북 86호)



김형룡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저이니눔이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전국 2912호(경기 286호)



이현옥

“욕심은 불행이 씨앗입니다.”

전국 2914호(경남144호)



장병서 前 스키코리아 회장
제6대 경남 사랑의힘에 회장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전국 2915호 (부산 264호)



마정래 (주)엠오티 대표이사
`나눔은 배려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며,
행복한 삶이 약속입니다.`

전국 2916호(광주 137호)



박찬갑 (주)세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진실한 기업 경영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전국 2917호(광주 138호)



김통기 (주)누리산업개발 회장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2918호(경북 143호)



김성하 김인건축사 대표
`미래를 위해 아동·청소년 세대가 차별 없고 부족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부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이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국 2919호(서울 361호)



아수희 마이크로리버파크
임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나눔이란 보람입니다.`

전국 2924호(광주 140호)



조광철 코비코(주) 대표이사
`주변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중앙회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3기 성과공유회 개최

사랑이열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스타트업이 역량 강화를 돕는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3기 사업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3기 사업에 참여한 7개 팀이 소개와 주요 사업 결과물을 발표했으며, 각 팀은 전시·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로그간이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28일에는 7개 팀이 결과물을 전시하고, 간접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 활동은 공공이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만, 외부 지원을 받기 힘들고 초기 3년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랑이 열매는 2019년부터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2인 이상이 미실립 팀부터 설립 3년 미만인 신생 단체를 지원해, 비영리 스타트업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7월에는 4기 팀을 모집·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 기부

가수 임영웅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뮤직과 함께 총 2억 원을 사랑이열매에 기부했다. 임영웅은 6월 18일인 자신이 생일을 기념해 전국에서 이어진 팬클럽이 기부 행렬과 지난 5월 시작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팬들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여파와 경제 불황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영웅은 지난해에도 생일을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해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영웅시대 역시 임영웅 못지않은 나눔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700여만 원을 기부하며 서울 사랑이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고, 올 3월에는 임영웅을 따라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억 6,000만 원을 기부하며 성숙한 팬클럽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사)한국브리지협회·서울시브리지협회, 나눔 동참
 지난 6월 3일 (사)한국브리지협회가 529만 원을 서울 사랑이열매에 기탁했다. (사)한국브리지협회는 2014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2020년 서울 16호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날 유관 기관인 서울시브리지협회는 자선 팀 토너먼트를 개최해 마련한 1,000만 원을 기부하여 서울 26호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학생 멘토링사업 The가꿈 6기해단식
 지난 5월 27일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이 후원으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진행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The가꿈 6기해단식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학습 및 경서지원을 위한 비대면 멘토링 사업으로, 141이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가꾸미 멘토 70명이 1년간 활동했다. 해단식에선 그동안이 활동을 정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대동보쌈모임, 부산 착한가게 900호 가입
 보쌈·메밀국수 전문점 대동보쌈모임대표 정증갑이 부산 사랑이열매 착한가게 900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증갑 대표는 올 상반기 발족한 부산 사랑이열매 모금 전문 나눔봉사단 단원들이 홍보 활동을 통해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에게도 복이 돌아온다고 믿는다"며 "주변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진제 법원 대선사, 성금 8억 원 쾌척
 대한불교조계종제13대, 제4대 중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선사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국내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이 성금을 부산 사랑이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진제 법원 대선사는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 시민과 재가 불자들이 부단히 정진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주)제이앤제이컴퍼니, 손소독제 1만 800개 기탁
 확장용 전문 기업 (주)제이앤제이컴퍼니(대표이사 서정호)가 손소독제 1만 800개를 대구 사랑이열매에 기탁했다. (주)제이앤제이컴퍼니는 코로나19 대응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 서정호 대표이사는 “일상 회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랑의도시락나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석)이 대구 혁신 도시 8개 공공 기관과 함께 도시락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소가 폐쇄된 탓에 끼니해결이 어려워진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 중 50가구에 도시락과 선물 꾸러미 1,050박스를 전달했다. 9개 기관이 임직원 및 봉사단 40여 명이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상생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인천



이규원치과,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위한성금기탁
 이규원치과(공동원장 이규원·이근아)가 기부금 1,000만 원을 인천 사랑이열매에 전달했다. 아프리카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송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규원치과는 2010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녀자간인 이규원·이근아 원장은 “마녀 회원으로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복지, 1,000가구에친환경 복지 지원
 복지 전문 제조업체인 신한복지가 1억 원 상당의 자사 제품 복지 1만 4,092개를 인천 사랑이열매에 전달했다. 복지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중 1,000가구와 인천이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들에게 지원했으며,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강원·경남·전남·경북 지역자활센터에도 전달했다. 신한복지 고경호 상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주)아로마라이프 이승우 부사장, 문화체험 프로그램 후원
 (주)아로마라이프 이승우 부사장이 돌봄이웃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후원 성금 400만 원을 광주 사랑이 열매에 전달했다. 지난해 부모님에 이어 자녀 회원으로 가입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는 이승우 부사장은 올해 초 겨울 이불 100재를 기탁한 이후 또다시 선행을 결심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 사랑이열매, 임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6월 10일 광주 사랑이열매가 임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 사랑이열매 박철중 신임 회장 취임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2022년도 추경예산 및 신임 운영위원과 배분과실행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련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박철중 회장은 회의에서 "운영위원분들이 앞으로 도시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대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사회봉사단, 착한일터 가입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한섭) 사회봉사단이 대전 사랑이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교통 약자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 생명 나눔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 대전 나눔영문기업 12호로 가입한 바 있다. 박한섭 본부장은 "늘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가수 임영웅팬클럽, 생일기념 나눔 실천
 가수 임영웅이 샌클럽인 영웅시대 with HERO 대전·세종이 임영웅이 생일 6월 16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금 610만 원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저금통을 대전 사랑이열매에 기탁했다. 영웅시대 with HERO 대전·세종 회원들이 610만 원 기부 이벤트는 2020년 동구 지역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탁을 시작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성금은 중구 지역 한부모 가정 31세대에 전달했다.

울산

**현대자동차블루핸즈서동점, 착한기업 가입**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인 블루핸즈 서동점(대표 김동찬)이 울산 사랑이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블루핸즈 서동점은 앞으로 매년 후원금 100만 원을 울산 중구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5월 24일 중구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다경)는 블루핸즈 서동점을 방문해 착한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화솔루션(주)울산공장, 범죄피해자지원기금전달식**

한화솔루션(주)울산공장이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에 범죄 피해자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4월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지원이다. 김광호 경찰청장은 "울산 경찰은 대기업 기금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적극 돕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 성금기탁**

수원·용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가 경기사랑이열매에 성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수원 지역에 1,500만 원, 용인 지역에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예정이다. 수원·용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는 제2회 지역 상생이 날을 맞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중부일보, 착한나눔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주)중부일보(대표이사 최은정)가 경기 사랑이열매와 '경기도 행복이 착착착 착한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오는 10월까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획보도와 공동 모금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중부일보는 소액기부를 이어가는 착한일터·착한가게·착한학원 등 개인 및 단체를 집중 조영하는 연중 계획을 진행한다.



파주시운정1동, 커피전문점 착한가게 단체가입
 파주시 운정1동 메가커피씨커피 운정해솔아름정과 운정힐스테이트점, 컴포즈커피 파주삼스포링점이 경기북부 사랑이열매 착한가게에 함께 가입했다. 컴포즈커피 파주삼스포링점 영고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복 가까워진 것 같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는 매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산새마을금고, 착한일터가임으로 이웃사랑실천
 남양주시 다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옥진)가 지난 6월 13일 경기북부 사랑이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김옥진 이사장은 착한일터 가입으로오는 성금이 남양주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금은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오토모인태세넬, 마스크 17만 7,000장 기부
 (주)오토모인태세넬(회장 윤현준)이 강원 사랑이열매에 5,000만 원 상당이 마스크 17만 7,000장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 강원 사랑이열매 유계식 화장이 참석했다. 마스크는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유계식 회장은 "마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강원도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사랑이열매 최문순 명예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지난 2013년부터 강원 사랑이열매 명예회장으로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에게 강원 사랑이열매가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복지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원도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충북



현대에너지솔루션(주), 주택용 태양광 설비 후원
 현대에너지솔루션(주)대표 박종환이 주거 취약 계층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며 기증식을 진행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주)은 도내 10가구에 2,7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와 시설을 설치 비용을 후원했으며, 최대 5년간 사후관리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지원으로 가구당 월 4만 2,000원이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착한일터 만들기 동참
 지난 6월 8일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대표이사 이규원)가 충북 사랑이열매 착한일터에 동참해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감대식 경영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많은 임직원이 정기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 지역 새마을금고, 보행 보조기 44대 기탁
 새마을금고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 44대를 충남 사랑이열매에 기탁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와 서산시 관내 3개 새마을금고(대산, 서산, 서산중앙), 서산·태안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1,150만원으로 구입한 보행보조기는 서산시 15개 읍·면·동 어르신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2022년 사회복지 협회·단체 간담회 개최
 충남 사랑이열매가 지난 6월 15일과 16일, 충남도내 사회복지 직능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랑이열매 배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현상 변화, 사회복지 욕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하반기 공모 배분 사업 등을 안내하고, 모금·배분 선순환구조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전북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 노조위원장 전교성이 전북 사랑이열매 9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본부 중 전국 최초 가입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김영환 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빛내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첫 119안심하우스 탄생, 화재 피해자보금자리 마련
정읍시에서 전북 1호 119안심하우스가 탄생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지난 4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을 잃은 화재 피해자 세대를 119안심하우스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안 내부 수리 및 지붕 교체 작업을 실시해 주택을 복구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도내 기업과 단체인 성공으로 주택 복구 지원이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남



김미자씨 가족에 착한가정 인증패 전달
전남 사랑이열매가 지난 5월 30일 진도군청에서 김미자 씨 가족에게 착한가정 인증패를 전달했다. 김미자 씨 가족은 2021년부터 매월 3만 원을 기부하여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미자 씨는 "가족이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착한가정 가입을 통해 자녀에게 나눔이 무엇인지 알려 줄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광주전남영업센터, 착한일터 가입
지난 6월 15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센터장 김홍배) 임직원 50여 명이 정기 기부를 약속하며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전남 사랑이열매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7일 동안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우리전남 일상 회복 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가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부자가 됐다.

경북



(사)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에 이웃사랑 실천기부자감사패 수여 경북 사랑이열매가 (사)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에 이웃사랑 실천기부자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는 매년 경북지역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부터 고향사랑(병도민) 나눔, 코로나19 특별 오금, 함께오야행 복금고, 울진 산불피해 지원 등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누적 기부 금액은 9,700만 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 난치병 지원 성금 전달식

지난 5월 30일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사랑이열매에 난치병 치료 지원을 위한 ex-사랑기금 4,300만 원을 전달했다. ex-사랑기금은 한국도로공사가 V리그 2021·2022 시즌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 경기 결과에 따라 1경기 승리당 100만 원, 서브·블로킹·후위 공격득점당 각각 3만 원을 적립한 기금이다. 성금은 김천지역 희귀 난치병 환자 14명이 치료비로 전액 사용했다.

경남



정직한장어 오동련 대표, 나눔리더가입으로 사랑나눔

숯불구이 인문학어를 판매하는 음식점 정직한장어의 오동련 대표가 경남 사랑이열매 28회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 오동련 대표는 "병소 사랑이열매 회보를 구독해왔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기부자를 보면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복지사업 추진 업무 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경남 사랑이열매와 창원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사랑이열매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지원금 총 3,790만 원을 활용해 10월까지 영세 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 안심도시락 지원, 독서기 폭영극복 여름 이불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생필품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bhc 연동점·이도점·탐동점, 착한가게 단체 가입
 bhc 연동점(대표 이승택), 이도점(대표 임지민), 탐동점(대표 신유식)이 제주 사랑이열매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가입식에는 bhc 제주가맹점협의회를 비롯해 기존 착한가게 가입 가맹점(bhc 노형점·도남점·신제주점·중문점) 점주들이 참석해 이목을 더했다. bhc 제주가맹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착한가게 가입 점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촌파크하이드브레드, 빵과 굿즈 판매 수익금 기부 약속
 다수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송촌 세프가 따뜻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제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송촌파크 하이드브레드 빵과 송촌파크 굿즈 판매 수익금을 제주 사랑이열매에 기부하기로 한 것. 송촌 세프는 "더 많은 분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 | 2021 | 2020 | 2019

세종



(주)코스매직, 세종시 착한소비 1호 기업
 (주)코스매직(대표 최근홍)이 세종 사랑이열매와 착한소비 공익 연계 마케팅(CRM) 협약을 맺었다. (주)코스매직은 '갤러플'이란 브랜드로 온라인상에서 휴대용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 중이며, 그림톡(휴대폰 거치대), 카드지갑 케이스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사랑이열매 로고 가상인물 그림톡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복지 증진 업무 협약 체결
 세종 사랑이열매가 해밀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민간위원장 장국환, 공공위원장 강인택)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역이 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연계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 협력기구다. 세종시 관내 22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중 21개소가 세종 사랑이열매와 협약을 맺고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



의료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당장 몸이 아파도 의료비 걱정에 끝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증을 참고 살아간다. 사랑의열매가 8대 배분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 지원을 포함한 것도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서다. 누구나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아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허가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천을 통해 세 문케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예월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ockor@chest.or.kr



새 나라, 새 일꾼 신입직원 김예설

Yes,
sir!

5화 - 두근두근 첫 미팅!

